

전 남

올 나주배 생산량 20% 줄어들듯

이상기온·혹성병 영향 ... 특품비율 10% 불과 농가 “생산비나 건질 수 있을런지...” 긴 한숨만

올해 불철 이상기온과 혹성병 영향으로 배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 나주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3일 나주배원에 농협에 따르면 대표적인 추석 과일인 배가 불철 냉해 피해에 따른 착과불량 및 5~6월 혹성병 유행 등으로 생산량이 20% 이상 줄어들어 가격 역시 예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전체적인 생산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품 비율은 더욱 감소, 전체 생산물량 가운데 10%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올해 배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배원에 농협 관계자는 “추석은 10여일가량 빨라진 반면 이상 저온에 따른 착과불량 및 병충해 발생 등으로 추석절 물량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추석 출하시기 신고 15

kg기준 가격이 최소한 6만원 이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때문에 배 주산지인 충청권과 경기도 인근 지역도 올해에는 추석 출하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태로 자칫 중도매상들의 추석 불확실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배 가격이 천정부지로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게 유통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나주지역 과수농가들은 이 같이 배가격이 대폭 인상될 전망인데

도 배농사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상태로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농민 K씨(64·나주시 왕곡면)는 “배 농사 30년 만에 올해가 최악”이라며 “4월 한파 때문에 착과가 제대로 안 된 데다 혹성병이 유행해 제대로 된 배가 없고, 특품은 지난해 10분의 1이나 될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주지역 대부분의 농가들은 올해 이상 저온에 따라 착과율은 예년에 절반 수준인 상태에서 혹성병 여파까지 겹쳐 생산된 배가 판매가 어려운 정도로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대나무골 담양, 피서객 급증

올 여름 죽녹원·소쇄원 등 6만여명 찾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담양 죽녹원과 소쇄원 등 주요 관광지가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31~1일 이틀간 죽녹원(사진)과 가마골·소쇄원·대나무박물관 등 군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관광지를 찾는 유료 관광객 수가 6만 명을 넘어 입장료 수입만 1억여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무료 입장객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과 관광제일 퀴아 가로수 길과 관광제일정자·한재필과 용흥사 계곡·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속박물관과 대나무테마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 수를 합하면 하루 평균 6

만~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휴가철을 맞아 휴일과 평일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특산물 판매점과 식당·차집 등에는 순번을 기다리는 관광객 행렬로 진풍경이 연출됐고, 한 식당은 하루 매출액이 4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전국 대표적인 웰빙 관광지로 떠오른 죽녹원의 경우 외부온도에 비해 4~5도 낮고 탄소 흡수량이 소나무에 비해 4배가 넘는 뿐만 아니라 산소와 음이온 발생량이 일반 숲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경희기자 cjoh17@



국화 ‘백마’ 대량 수출길 열렸다

농기원, 양액재배 기술 개발 수출규격품 생산 성공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국내에서 육성된 국화품종 ‘백마’의 양액(養液)재배 기술개발로 수출규격품 생산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양액재배 기술은 ▲적정 배치선발 ▲생육단계에 따른 양액농도와 공급주기 ▲광원종류에 따른 전조(電照) 효과 ▲양액배지의 근권(根圈) 온도관리기술 ▲줄기 속박현상(줄기동공화 현상) 경감기술 등이다.

새로운 양액재배 기술을 적용한 결과 수출규격품 생산비율이 기존 50% 미만에서 75%로 향상되고, ‘줄기속박 현상’도 1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예연구소 황인택 연구사는 “앞으로 국화재배 농가들이 고품질의 균일한 국화꽃을 생산, 수출할 수 있도록 양액재배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빈병으로 만든 ‘뉴 하멜호’

강진군 병영면 도봉마을에서 진행중인 ‘국제 레저전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최근 마을을 금강천에서 동동주 빈병 500여개로 제작한 ‘뉴 하멜호’를 타고 있다. 국제 레저전시프로그램은 오는 22일까지 마을 홍보영상물·역사·음식 개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제공)

장흥 ‘정남진 물축제’ 대성황

관광객 88만명 ... 650억 경제효과 창출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가 대성황을 이뤘다.

장흥군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88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650억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성공요인으로 우선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사업’을 통해 곳곳에 조성된 꽃 단지와 나무숲·습지공원·물레방아 등산 등 탐진강의 뛰어난 수변환경을 꼽았다.

‘대한민국 꼬맹이들의 여름 무더위

탈출’이라는 컨셉에 맞게 강물위에 수상 수영장과 자연물장을 설치 운영 하는 동시에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정남진 토요시장 한방생약 특구 등 지역의 특색자원을 활용한 향토 주제를 운영하고 읍·면·대항 뗏목경연대회 등 향우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입장료와 체류료 3880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사진)해 세계 물기근국가 어린이 식수개선사업과 몽골 울란바토르시 음수대 설치사업에 사용토록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년 축제와 2015년 ‘세계 물엑스포’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주민과 ‘열린대화’ 끝낸 임성훈 나주시장

“지역 현안 미루지 않고 적극 해결”

“지역 현안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해 해결하겠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이 2일 노안면을 끝으로 지난달 20일부터 가졌던 지역 19개 읍·면·동 주민들과의 ‘열린 대화’를 마무리했다.

임 시장은 7월 1일 취임 이후 주요 간부들과 마라톤 회의를 갖고 주요 시정현안을 파악한 후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고 격의없는 자리를 통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에 주력했다.

이번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격사와 의견을 탈피해 기존에 질문자를 정하거나 초청장을 보내 참석을 요청했던 것과 달리 마을방송 등 홍보만으로 자율 참석토록 해 지역사회 저변층의

참여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임성훈 시장은 민선 제5대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지역현안·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수렴해 구체성이 돋보인 진술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 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성훈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나온 주민 건의사항은 현장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조속히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조기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새얼굴

“주민과 소통 ... 신뢰회복할 것”

황 의 수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지금의 흐트러진 검찰 불신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검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일 부임한 황의수(48)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은 “언제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부만지는 분위기 속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정서를 해치는 고질적인 토착형 부정부패를 단호히 뿌리뽑아 지역안정

을 유지해 나간다는”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경북 의성 출신인 황 지청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3년 사시(35회)에 합격한 뒤 1996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여주지청 부장직사를 역임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남구 서동 대지 487㎡(141평) 건물은 50평과 101평 2동 있음. 공시지가 4억5300만원 대도 3억1500
- 평당용 상업지 246평 공시지가 대도 1억9800만원
- 충정로 671 바스도르 대지 27평 건평 32평 대도 2억4500
- 충정로 대항상 대지 536.2평 건평 180 평시지가 19280원, 대물 11억 대도 18억
- 신촌동 대지 72, 건평 200 공시지가 3억 대도 2억8천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지가 3억 건평 대도 2억4천
- 신안동 주거지, 대지 574㎡ 평시지가 5억 대도 5억3천
- 대지, 두왕동 소성도요정 27㎡(82평) 1억5천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평 건평 173 대물 3억 대도 8억5천
- 목포시 대지 413평 3층건물 공시지가 5억2천 대도 8억2천
- 금남로 청양고교 뒤 주택 영영을 전매 공시지가 대도 8400만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65 건평 206평 대물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평 건평 173 대물 3억 대도 8억5천
- 목포시 대지 413평 3층건물 공시지가 5억2천 대도 8억2천
- 금남로 37: 대지 100 건평 311 공시지가 6억5천 대도 7억6천
- 금남로 47: 대지 237 건평 1463 공시지가 40억 3천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 5억3천 월세 2천 대도 39억

■ 대도·교환

- 두림타운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용 적합 평당 370만원
- 월봉 광주역 앞 대지 108평 건평 383평 부를 17기 원용 67기 27기는 공실 전세 8500 월 8500 대도 7억2천
- 모일 누문동 대지 103평 건평 336평 건축가능한 평교 환 9944천
- 모일 송정동 대지 250평 건평 367 건축가능한 평교 환 9945천
- 생신동지 서구 세하동 650평 공평당 다용도 4억4천
- 생신동지 최고 다용도 공사구 비이 2722천 13억
- 홍포동 유실수 있는 달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전원주택지 송산유원지 박호동 399평 사할 적합 분할가능 1억 8500
- 북구 송호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생신동지 서구 덕왕동 1802평 공시지가 6억3천 대도 9억4천
- 지연동지 706평 대물용 서평주역 부근 대도 9억4천
- 최순동 농주인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베이, 1900만원
- 최순동 현전면 관리지역 등 일야 13,862원 공평 당 다용도 평당 1200원
- 서구 유촌동 생신동지 1631 평과 청교, 공시지가 14억 3천 청교는 1년 시공세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
- 월봉동 화정동 대지 91평 건평 145평 원용 10기 부를 3기 쓰리개 2주 주 대고 전세 1억천 월380 대도 5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 교동상 영일지 관산구 우산동 998평 영일영일 평당 6억 7천

■ 원룸·다세대부지

- 백산동 리안 아파트 부근 1329㎡ 402평 평당 132만원 5억 4천
- 동성동 도시사 관사 부근 1239㎡ 375평 평당 132만원 6억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5천, 교육,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 매월 임대 수익지역
 - 골포연습장 인근, 대로면, 2780㎡(841평) 대도가 22억원
- ▶ 광산구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 개별공시지가가 6억, 대물 3억~3억5천만원 가능
 -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육시설
- ▶ 마북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령실 뒤면 도로변, 생신동지 860㎡(260평) 매매가 7억 8천만원
- ▶ 벽진동 철교, 공평부지
 - 벽진동 68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 광산구 1동 일반주거지역 매매
 - 신수동 1744㎡(528평) 대도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대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 남평 토지 매매

- 풍림리, 계화관리지역, 2차선 도로변, 잡종지 2951㎡(893평) 공장, 철교 등 용도 다양 대도가 2억9천만원

건물 매매

- ▶ 수익성 좋은 침실 추가 매매
 - 생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82㎡(200평)
 - 1층상가 2층, 3층, 4층, 원룸, 투룸, 매매가 7억6천만원
 -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 상가 및 특목탕 건물 매매
 - 생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 대물 4억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공평 철교 건물 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 594.5㎡(180평) 비협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대도가 7억 8천만원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를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 (구, 33평) 로얄층 / 164㎡ (구, 49평) 로얄층
191㎡ (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 (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 112동 1102호 ▶ 113동 1004호
- ▶ 112동 1201호 ▶ 114동 1101호
- ▶ 112동 1202호 ▶ 114동 1301호
- ▶ 112동 1302호 ▶ 114동 1401호
- ▶ 112동 1402호 ▶ 123동 402호

최대할인금액 6천만

주변 소평터온 / 교묘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기회 상승 기대 최근 대림·편한세상이 우수 건설사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입주자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탐공인중개사 ◎ 대림124후 후문 입구
☎ 062) 367-1232 / H.P 010-2587-8552

대인동십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편과 연일 분 손편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 011-802-2532
(명주동 신촌동, 대인동 소성사거리편)

인생 열쇠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
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
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병고로 시달리
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
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062-383-8982

플러스부동산 (임대사업 전문인사)

년 수익률
10%이상책임보장

1억 투자시년
1000만원이상소득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일반 상업용 건물,
상가, 권리분석,
임야 영림 계획 작성!
국·공유지 공매

노후 대책 최상의
수익사업 ???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은 투자 가치가 없다

T.226-3377 FAX.226-3399
(생신동, 남구 양재동대림 건너 플러스상가내)